

# “디바가 있을 곳, 역시 무대죠”

가수 이은미 4년만에 전국 라이브 투어 콘서트

고양·대전 등 40개 도시 순회  
지난 12일 여수 공연 마쳐  
연내 재즈 장르 7집 발매 계획

“저는 역시 무대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맨발의 디바’로 잘 알려진 가수 이은미는 14일 4년 만의 라이브 투어 콘서트를 맞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연을 하지 않는 기간이 어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랫동안 전해드리지 못한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진짜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공연을 만들어보고 연습 중입니다.”

이은미는 지난 12일 여수를 시작으로 대전, 고양, 원주, 강릉 등 전국 40여 개 도시를 도는 라이브 투어 콘서트 ‘녹턴’을 진행하고 있다. 공연명은 그의 히트곡 이름을 따왔다.

그는 1989년 ‘신촌블루스’의 객원 가수로 데뷔한 이래 깊은 감수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무기로 ‘녹턴’, ‘애인 있어요’, ‘기억 속으로’, ‘헤어지는 중입니다’ 등 여러 히트곡을 냈다.

무대에 오른 30여 년간 내놓은 솔한 히트곡 중에 ‘녹턴’을 공연명으로 삼은 까닭이 궁금했다.

“‘녹턴’은 제게 또 놀라운 경험의 곡으로, 그 음악 처음 들었을 때의 감정과 지금 수만 번도 더 부른 뒤의 감정이 다르지 않은 유일한 노래예요. 음악의 감정이 그렇게 환절기같이 어려운데, 그 곡은 내가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곡이지요.”

이은미는 “그러니 ‘녹턴’을 제 대표곡으로 기억하시고 가장 이은미답다고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라며 “가장 이은미 같은 모습으로 콘서트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은미” 하면 관객이 기대하는 라이브 무대는 아무래도 히트곡 ‘애인있어요’, ‘헤어지는 중입니다’, ‘녹턴’ 등이 있다. 관객들에게야 고대하는 무대겠지만 가수 본인에게는 수천수만 번 부른 노래일 터. 이 노래들에 대한 솔직한 감정은 뭘지 묻어봤다.

“음악은요, 만들 때만 제 것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때만 제 것이고, 세상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대중의 기억에 ‘애인있어요’가 이은미라고 남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는 “‘애인있어요’든 ‘녹턴’이든 그 음악을 내가 먼저 표현했고, 대중에게 각인된 목소리가 됐다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이라며 “그것만으로 너무 영광이고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은미는 이번 콘서트 투어를 통해 무려 40여 개 도시를 찾는다. 어지간한 국내 도시는 방방곡곡 다 간다는 이야기다. K팝 한류가 전성시대를 맞았지만 오히려 대형화된 콘서트가 서울에 집중되는 요즘 세태와는 다른 행보다.

그는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한 번의 투어 콘서트에 45~55개 도시를 찾았다”며 “문턱을 낮춰 더 많은 분이 문화를 즐기게 하는 게 목표이고, 문화적 경험과 감동이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확신하기에 더 많은 곳을 찾아가고 싶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이은미는 지난해 2월 싱글 ‘스물여덟’ 이후 1년째 신곡 소식이 없다. 최근에는 2005년 6집 이후 무려 18년 만의 정규음반이 될 7집 작업을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스탠더드 재즈 장르를 담아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음원 시대로 바뀌고 디지털 싱글을 주로 내다 보니 ‘몇 집’ 같은 것은 속스럽네요. 이번에는 한정판으로 LP도 제작해보려고 해요. 스탠더드 재즈를 해 보고 싶은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음반을 듣고 자랐기에 꼭 한번은 해 보고 싶었거든요.”

이은미는 지난해 2월 싱글 ‘스물여덟’ 이후 1년째 신곡 소식이 없다. 최근에는 2005년 6집 이후 무려 18년 만의 정규음반이 될 7집 작업을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스탠더드 재즈 장르를 담아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음원 시대로 바뀌고 디지털 싱글을 주로 내다 보니 ‘몇 집’ 같은 것은 속스럽네요. 이번에는 한정판으로 LP도 제작해보려고 해요. 스탠더드 재즈를 해 보고 싶은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음반을 듣고 자랐기에 꼭 한번은 해 보고 싶었거든요.”

“음원 시대로 바뀌고 디지털 싱글을 주로 내다 보니 ‘몇 집’ 같은 것은 속스럽네요. 이번에는 한정판으로 LP도 제작해보려고 해요. 스탠더드 재즈를 해 보고 싶은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음반을 듣고 자랐기에 꼭 한번은 해 보고 싶었거든요.”



## 무대 뒤 비밀 체험 ‘신비한 극장’

ACC, 24~25일 무대기술 시연 등

무대에서 펼쳐지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그러나 작품을 올리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한 무대 뒤편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경계에서 바라보는 무대 위와 무대 뒤의 풍경은 전혀 다른 이미지와 상상을 선사한다.

무대 뒤 숨은 비밀을 알아보는 특별한 체험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은 ACC 무대기술 체험 ‘신비한 극장’을 운영한다. 오는 24~25일(오후 2시~7시30분 공연) 총 4회 예술극장 극장1에서 펼쳐지는 신비한 극장은 무대기술을 체험하고 공연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먼저 무대기술시연 프로그램에서는 ‘배튼(조명

이나 무대장치를 연결하는 붐)쇼’를 볼 수 있다. 매체예술(미디어아트)과 함께 해금, 플루트, 타악기 합주와 조명에 안무가의 군무를 조합한 기술 공연이다.

이후 음향, 조명, 무대 등의 기술을 ACC 극장 감독들과 함께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현장에서 선착순 30명 대상)

오후 7시30분에는 대중성과 독창성을 겸비한 인디밴드 아도이(ADOY)의 공연을 즐긴다. 기술과 예술이 결합한 공연은 관객을 환상의 세계로 초대할 예정이다.

전석 무료이며 입장권 예매. 공연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예매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불편한 편의점’ 美에 판권 판매

지난해 11월 누적 판매 100만 부를 돌파한 김호연 작가의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전 2권)의 영어판권이 영미권 최대 출판그룹 중 하나인 하퍼콜린스에 판매됐다.

‘불편한 편의점’의 해외 번역 판권은 현재까지 미국을 비롯해 태국, 대만,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과 러시아, 튀르키예, 불가리아 등 11개 언어권 13개국에 수출됐다.

‘불편한 편의점’은 서울 청파동 골목의 편의점을 배경으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을 따뜻하게 그린 작품이다. 2021년 4월과 지난해 8월 1·2권을 잇달아 펴내 힐링 소설로 100만 독자의 공감을 얻었다. 이 소설은 오는 4월 연극 무대에 오르며, 올해 하반기에 ENA 채널에서 드라마로도 방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김치’의 다양한 변주

광주MBC 4부작 ‘레드디쉬’ 지역 김치 발굴·새 요리 창조 등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잘 알지 못했던 우리네 ‘김치’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음식의 ‘대가’들과 김치에 대해 알아보는 광주MBC ‘레드디쉬’가 이달 중 시청자들을 찾는다.

‘레드디쉬’는 총 4부작에 걸쳐 우리 지역 곳곳의 다양한 김치들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김치 요리를 창조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른나라의 절임김치를 소개, 비교하며 김치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한식과 사찰음식의 대가, 북한 요리사 등을 초빙해 김치에 대해 보다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다.

‘레드디쉬’의 1부(18일 오전 8시 20분)와 2부(19일 오전 9시 40분)에서는 각각 ‘발견’과 ‘실현자의 탐험’을 주제로 한식의 대가 조희숙 셰프가 현장을 찾는다. 조 셰프는 “그저 반찬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얼마든지 김치를 주 요리로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전국 곳곳의 다양한 김치와 주

요 식재료를 마주하며 새로운 김치요리, 레드디쉬를 만들어낸다.

3부 ‘변주의 세계’는 25일 오전 8시 20분에 방영된다. 독일의 사우어 크라우트, 중국의 파오차이 등 인류가 식재료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한 절임 요리의 다양한 형태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날은 북한 1급 요리사 안영자 셰프가 함께해 평양 백김치와 양배추 김치 등 북한의 다양한 김치와 맛을 소개한다.

‘오래된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4부(26일 오전 9시 40분)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간직한 우리의 김장 문화를 조명한다.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해 화제가 된 사찰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음식으로서 채식인 김치가 곧 우리의 미래를 제안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전남문화재단, 지역 예술인에 협업 기회



지난해 ‘예술로’ 사업으로 개최된 제이베이커스의 음악회.

<전남문화재단 제공>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공모 선정

전남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예술로 사업은 지역 활동 예술인과 사회 기업·기관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참여 예술인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인의 직업 역량과 예술영역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4년 연속 지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단은 지난 20년부터 22년까지 29개 기업, 기

관과 140여명의 예술인에게 지역의 문화다양성, 귀농귀촌,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올해는 국비3억9600만원을 확보해 총 10개 기업·기관과 50명에게 프로젝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술활동 증명서 완료된 예술인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월별 120만 원 또는 14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초 재단 누리집(<http://www.jncf.or.kr>) 사업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